

社說

환경 인식부터 바꾸자

환경이라고 하면 막연히 보전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기 쉽다. 또 먹고살기도 바쁜데 무슨 환경 타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면에는 환경이 단지 개발을 위한 단순 소모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모품은 사용 후 폐기 처분하는 대상이다.

최근에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영향으로 300만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그 영향으로 8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그렇다고 환경보전을 위해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가 혹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말자는 것은 뜻은 아니다. 환경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엄청난 재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을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서는 지구촌 온실가스 증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인간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반면 자연은 안정성을 추구한다. 즉 인간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연의 안정성에는 방해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지구촌 온실가스 증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온실가스 효과는 결국 지구기온 상승으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이어지는 현상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진대 환경공학대학과 김병태 교수가 주장한 경기북부 환경네트워크 구축은 시기가 적절하다고 본다. 김 교수는 주민과 산업체, 행정기관,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합목적 도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개발이라는 절대논리

이러한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환경적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소모품이라는 생각에서 경제활동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같은 개발이라는 절대논리

이러한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환경적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소모품이라는 생각에서 경제활동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같은 개발이라는 절대논리

이러한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환경적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소모품이라는 생각에서 경제활동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같은 개발이라는 절대논리

이러한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환경적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소모품이라는 생각에서 경제활동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같은 개발이라는 절대논리

이러한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환경적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소모품이라는 생각에서 경제활동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같은 개발이라는 절대논리

이러한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환경적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소모품이라는 생각에서 경제활동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같은 개발이라는 절대논리

이러한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환경적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소모품이라는 생각에서 경제활동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같은 개발이라는 절대논리

이러한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환경적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소모품이라는 생각에서 경제활동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같은 개발이라는 절대논리

이러한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환경적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소모품이라는 생각에서 경제활동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같은 개발이라는 절대논리

이러한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환경적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소모품이라는 생각에서 경제활동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같은 개발이라는 절대논리

이러한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환경적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소모품이라는 생각에서 경제활동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같은 개발이라는 절대논리

이러한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환경적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소모품이라는 생각에서 경제활동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같은 개발이라는 절대논리

이러한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환경적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소모품이라는 생각에서 경제활동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같은 개발이라는 절대논리

이러한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환경적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소모품이라는 생각에서 경제활동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같은 개발이라는 절대논리

이러한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환경적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소모품이라는 생각에서 경제활동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같은 개발이라는 절대논리

이러한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환경적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소모품이라는 생각에서 경제활동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같은 개발이라는 절대논리

이러한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환경적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소모품이라는 생각에서 경제활동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같은 개발이라는 절대논리

이러한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환경적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소모품이라는 생각에서 경제활동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같은 개발이라는 절대논리

이러한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환경적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소모품이라는 생각에서 경제활동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같은 개발이라는 절대논리

이러한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환경적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소모품이라는 생각에서 경제활동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같은 개발이라는 절대논리

이러한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환경적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소모품이라는 생각에서 경제활동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같은 개발이라는 절대논리

이러한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환경적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소모품이라는 생각에서 경제활동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같은 개발이라는 절대논리

이러한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환경적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소모품이라는 생각에서 경제활동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같은 개발이라는 절대논리

이러한 환경네트워크를 통한 환경적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소모품이라는 생각에서 경제활동을 확대 재생산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郷土원로초대석 ⑬ 포천시유도회 군내면지부장 이창수



이창수

포천시유도회 군내면지부장

1960년부터 20여년간 공무원으로 군내면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1983년 사무관으로 정년퇴임한 이창수(75·군내면 명산리 270)은 1960년대 새마을운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오늘날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고 한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모내기 전 보은 물

“잘하면 잘한만큼 못하면 못한만큼 되돌려 받는다”

학생은 책을 들고 다니며 공부해야 한다

못지리를 봐야 한다고 독려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이제 농사도 기계화가 돼 일손이 남아 돌아고 있다고 한다.

초가집도 지방개발에 나섰다. 마차가 다니는 소로를 확장해 차량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공무원으로 그래도 보람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렵게 일할 때는 힘들었지만 나고 보니 그때 하기 싫었던 기억도 없다. 어렵게 일한 만큼 보람도 큰 것 같다고 한다.

또 면사무소 효직계장으로서 일할 때 호적등본 하나 발급하는데 가족이 많은 경우 하루 종일 소요됐던 기억도 있다며 지금 생각하면 우리사회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한 것 같다.

은 인이 되고 씨가 되어서 잘하면 잘한만큼 못하면 못한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말을 생활신조로 삼아 생활해 온 이 용은 지난해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앓은 적이 있지만 그래도 건강한 편이라고 한다.

정직하게 살자'를 가슴속에 3남2녀를 교육하고 출가시켰다는 이 용은 현재 포천한시사 회원이며 포천향교장을 지냈으며 포천시유도회 군내면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부하는 즐거움에 대해 이 용은 "어무 일 없이 노는 사람보다 한 글자라도 익히는 즐거움이 있고 남들이 물어볼 때 자신 있게 답해주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한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이것만은 변하지 않아 할 것에 대해 이 용은 "학생들이 학교에 빈 가방을 다니는 것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산초등학교 2학년때 권택택 선생님이 구구단을 100번 써오라는 숙제를 토요일에 내주고 월요일에 검사한다고 하여 100회를 써 본적이 있다는 이 용은 그날 수업할 것을 미리 30~40번씩 읽어보고 간단명료한 이나 과외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공부하는 법을 귀뜸한다.

한시백일장에 참가하고 포천에서 개최하는 한국민속예술축제 등 큰 행사에 초대받았다며 가서 구경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용은 새벽5시에 일어나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평생을 책을 읽고 한시를 공부하며 살아가는 이 용에게서 포천 선비정신을 새삼 다시 읽을 수 있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본지 창간기념식 12월15일 의결

송년의 밤 행사 함께 실시키로

본지 운영위원회 제45차 정기회의가 본사 대회의실에서 지난 23일 개최돼 포천신문 가족 송년의 밤 행사를 올해부터는 창간 기념일로 바꿔 실시하자고 의결했다.



본지 운영위원회 제45차 정기회의가 본사 대회의실에서 지난 23일 개최됐다.

또 창간기념일을 포천신문이 처음 발간된 1월15일과 현 최호열 발행인이 인수받아 재창간 발행일인 10월25일 중간인 12월15일에 실시하자는 안건이 제시되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이용 위원장은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바쁘신 와중에도 운영위원회와 포천신문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하고 "오늘 회의의 안건 토의에 많은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본지 최호열 발행인은 "운영위원회 회의가 제45차 회의로 많은 시간이 흘렀다"면서 "그동안 물심양

면으로 큰 역할을 해 준 운영위원회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또 최 발행인은 "그동안 송년 밤 행사를 올해부터는 창간기념식으로 대체하면 좋겠다"고 말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창간기념식 대체 여부 및 일차 등을 결정하면 자문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에서 정칙안건으로 상정, 처리해 500여 포천신문 가족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본지 제3기 자문위원회 본격 출범

제15차 정기회의의 신임 위원 위촉식도 가져

지난 26일 본지 자문위원회 제15차 정기회의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지 제3기 자문위원회는 지난 26일 첫 정기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12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제2기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재선임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제3기 본지 자문위원회를 이끌어 갔다.

또 신임 자문위원으로 백한창 정형외과 원장과 남궁중 포천시 산림조합장, 이관식 경북대 교수, 하재인 포천농협 이사, 정순호 법무사, 박운중 세무사 등 6명이 위촉됐다.

아울러 지난해 실시했던 2004년 포천신문 가족 송년의 밤 행사를 매년 12월15일 창간기념식으로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양주승 자문위원장은 인사 말을 통해 "요즘 사회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긍정적인 습관과 중용의 미덕을 갖추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며 "초심을 잃지 말고

보고 어두운 소식도 함께 전달해 시민들이 함께 하는 신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강경만

한국종합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란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권리구제와 대리 및 인사·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며 노사분규의 사전적 예방 및 공정한 조정을 통해 지속적인 노사공영체제의 확립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산업평화유지에 이바지함으로써 목적으로 하는 노사관계 전문가다.

이상은 한국종합노무법인 강경만(43.사진) 대표 공인노무사의 설명이다. 강 공인노무사는 지난 9월22일 포천상공회의소 노무 상담역으로 위촉돼 포천시 관내 기업체의 노무업무를 상담하기도 한다.

공인노무사의 주요업무는 기업체의 4대 사회보험 업무대행과 중소기업 인사·노무관리의 전문컨설팅, 사업장의 안전보건 등의 위험예방을 위한 업무지도,

잘 알지 못해 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인노무사에게 맡기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강 공인노무사는 포천신문 자문위원으로 4년째 활동중인데 포천의 유지라고 하는 자문위원들과 인적교류가 가장 큰 보람이라고 밝혔다.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포천의 크고작은 행정업무는 물론 기업체의 실태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한다. 포천신문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가 되

‘넓고 깊게 그리고 함축성 있게 노력한다’

분과위 구성해 분임토의, 포천신문 발전도모해야

노동위원회, 산재심의위원회 등 권리구제 사건의 당사자의 법적 대리, 단체교섭권 수임 및 노동쟁의시 임의조정, 기업의 인사 노무관리 진단 업무, 기타 각종 행정 절차 업무의 대행 및 노동상담 등이다.

그러나 강 공인노무사는 최근 우리 기업들이 인사·노무 업무위탁을 손실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투자라는 개념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80~90%가 공인노무사에게 위탁해 노동관련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강 공인노무사는 업무를 공인노무사에게 위탁처리함으로써 노동부의 정기근로 감독 면제와 4대보험 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임금체불로 고민하는 노동자들이 공인노무사에 의뢰하면 회사부도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을 선지급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한다.

공인노무사는 받을 금액의 10% 이내로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다면 10%이내의 수수료를 내고라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이익이다.

또 직장에 다니면서 과로에 따른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인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공인노무사는 평소 '넓고 깊게 그리고 함축성 있게'를 생활철학으로 삼아 지식을 넓게 쌓고 인적교류를 깊게 가지고 전문인으로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함축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학과 출신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과 조예가 깊고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와 풍양사, 서양사는 물론 향토사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독서와 골프가 취미인 강 공인노무사는 독서는 매일 조금씩 깊게 읽고 있으며 주로 사서삼경과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 역사 중 미처 공부하지 못한 분야를 주로 읽고 있다.

골프는 기업체 대표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6년 구력을 자랑하며 85~90타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포천신문 자문위원으로서 연명법 분과위를 구성해 분임토의 등 활발한 토론을 통해 포천신문이 전문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방송인의 꿈을 접고 90년대 초 공인노무사의 길로 들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며 열심히 노력한다는 강 공인노무사의 모습에서 전문가로서의 겸양지덕을 읽을 수 있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재명

삼호상사 대표



"얼굴이 검다고 속도 검은 것은 아니다. 키가 작다고 마음도 작은 것도 아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은 잘 할 수 있다. 나 보다 돈 없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으로 늘 주변을 둘러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삼호상사 김재명(55.사진) 대표를 만났다.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에서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삼호상사 김재명 대표는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거래처의 요구를 별 무리 없이 만족시켜 플라스틱 용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MF 이후 추후한 경제가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 탓에 큰 수익을 올리는 못하지만 착실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전남 구례가 고향인 김 대표는 서울에 상경하여 대림동에서 4년 동안 바르셀탈 기구위빙장을 하면서 위원들과 함께 신나게 위원회를 운영한 적이 있다. 상호간의

비록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고 부모로부터 재산 하나 물려받지 못했지만 건강하게 낳아 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고맙게만 생각한다.

지난 30여년간 우리사회는 천지개벽이 될 정도로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김 대표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인간성은 잃지 말라"고 강조한다. 인간성을 잃게 되면 금수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육부장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도덕성이 땅에 떨어질 정도가 아니라 땅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자신감으로 最善

‘세상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인간성은 잃지 말라’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적인 정을 돈독히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추진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장재수 동성유니테크 대표의 권유로 포천신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0여년동안 포천시에서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노력했다는 자부심으로 포천신문이 지역에서 정문지로서 그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범사회선’을 사훈으로 삼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는 자신감으로 최선을 다하면 안되는 일은 없다고 한다. 항상 낙천적인 마음을 갖고 웃는 얼굴로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노력한다.

사업가는 돈은 없어도 돈이 되는 일이려면 관심을 갖게 마련인데 이때 판단을 잘해야 한다. 이때 판단 한번 잘못 하면 크게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합시다’를 가슴으로 삼아 늘 건강을 강조하고 있다. 조실부모하여 어렵게 성장하고 동생을 뒷바라지한 데 해 주면서 부모님 제사 때마다 소원을 빌었던 것은 가족의 건강이었다고 한다. 건강해야 어떤 것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작은 소원이 이루어져 모든 가족이 건강한 것이 고맙다.

속에 묻혔다는 말이다.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초·중·고등학교에서 반드시 공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삼강은 군위신강(君爲臣綱)·부위자강(父爲子綱)·부위부강(夫爲婦綱)을 말하며 이것은 글자 그대로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오륜은 오상(五常) 또는 오전(五典)이라고도 한다. 이는 (맹자(孟子))에 나오는 義(의)·부유유신(朋友有信)의 5가지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道)는 친애(親愛)에 있으며,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의에 있고, 부부 사이에는 서로 침범치 못할 인륜(人倫)의 구별이 있으며, 어른과 어린 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하며, 벗의 도리는 믿음에 있음을 뜻한다.

김 대표는 포천신문 운영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위원들의 사업장을 위원장 등 임원들이 1년에 1회 정도는 방문하여 상호간의 신뢰도를 쌓아나가기로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늘 변함 없는 환한 얼굴로 만민을 대하여 늘 평안함을 주고 있는 김 대표의 얼굴에서 포천사회의 밝은 미래를 읽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어려운 이웃 위한 김장담그기 추진

주부명예기자단 가산면지부 9월 정기모임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가산면지부는 지난 28일 밤밭골에서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담그기 행사 추진과 10월 정기모임은 죽엽산 정상에서 개최키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주부명예기자단 가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가산면지부(지부장 김선애)는 지난 28일 오전11시 밤밭골에서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담그기 행사 추진과 10월 정기모임은 죽엽산 정상에서 개최키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주부명예기자단 가

산면지부 단원들이 각자 회의 장소 제공, 우유반대씩 시식회, 직접 재배한 파 나눠먹기, 삼겹살 파티 제공, 박카스 전달 등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회의를 개최한 김선애 지부장은 "가산면 지부는 일단 기사단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우선으로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우의를 돈독히 한 다음에 멋진 기사 작성과 적극적인 신문제작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Advertisement for Pocheon News (포천신문)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 list of board members.